

<서평>

## 아편, 주석, 고무의 시대를 거쳐 완성된 페낭 화인 사회

강희정, 『아편과 깡통의 궁전: 동남아의 근대와 페낭  
화교사회』, 서울: 푸른역사, 2019.

배재훈\*

### I. 페라나칸에서 ‘아편’과 ‘깡통’, 그리고 ‘고무’로 조명한 페 낭의 근대

이 책은 1786년 영국의 페낭 식민지 확보와 화인 사회의 형성에서부터 1930년대까지 화인 사회의 변화를 ‘아편’, ‘깡통’, ‘고무’라는 키워드를 통해 접근한 연구이다. 저자인 강희정 교수는 한국미술사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아시아권 국가의 미술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이 연구는 미술사학보다는 역사학이나 사회학적 방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낭을 중심으로 하는 말라카 해협 북부의 화인 사회를 심도 깊게 그려내는 데에 성공했다.

연구의 시작은 미술사가로서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자가 주목한 주제는 ‘페라나칸(Peranakan)’ 문화였다. 그

---

\*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islescop@aci-k.kr.

계기가 된 것은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싱가포르의 혼합문화, 페라나칸><sup>1)</sup> 전시였다. 이 이색적 문화에 대한 소개는 한편으로 우리 학계에 ‘페라나칸’이라는 문화적 실체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5~6쪽).

이후 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저자의 인식이 현지 조사로 이어지고, 페라나칸 문화에 대한 첫 연구가 2013년 발표되었다(강희정 2013).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첫 천착도 대략 그 즈음에 본격화되었다. 아편과 주석, 고무를 통해 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사와 그와 연관된 화인 사회의 모습에 대한 연구인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 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은 그 첫 결과물이면서, 이 연구의 기반이기도 했다.

저자가 이 책의 제목으로 내세운 세 가지 키워드들 중 ‘아편’은 초기 페낭 화인 사회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아편에 대한 징세청부제(farm)를 뜻하며, ‘깡통’은 페낭을 비롯한 말라카 해협 북부에 중국인 이주자를 불러온 주석 광산 산업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고무’는 고무나무에 대한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 지역에 확대된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 세 가지 중 아편과 깡통은 화인 사회의 형성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이며, 그것이 대표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고무는 그런 화인 사회가 서구의 근대적 산업 사회와 경쟁하며, 점차 주도권을 빼앗기는 시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의 시대를 여는 열쇠로 작용한다. 그렇게 하여 ‘페라나칸’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문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페라나칸으로 알려진 동남아 화인 사회의 문화에 대한 접근 통로로서 그 역사를 우선 조명해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 유형에 대한 이해 이전에 그 사회

1)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3년 3월 19일에서 5월 19일까지 진행된 전시로, 싱가포르의 아시아문명박물관과 페라나칸박물관 소장품을 소개하였다.

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책의 구성에도 반영되어 있다. ‘아편’ 권하는 사회, ‘깡통’과 거상의 시대, ‘고무’바퀴 아래의 페낭 화인사회 등이 각 장을 통합하는 큰 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본 서평도 이에 따라 책의 내용을 같은 주제로 II~IV 장에서 요약하고<sup>2)</sup>, V장에서는 이에 대한 간략한 평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 II. ‘아편 권하는 사회’의 형성

1786년 8월 11일 영국 동인도회사 소속의 현지 무역상이었던 프랜시스 라이트(Francis Light, 1740~1794)가 말레이반도의 술탄국 커다(Kedah)의 풀루 피낭(Pulau Pinang)을 점거하는 것으로 페낭의 공식적인 역사는 시작된다. 이는 인도의 아편과 중국의 차를 교역하는 무역을 지원할 수 있는 요새항구에 대한 동인도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페낭섬 자체의 역사는 이들의 점거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역사적 기록으로 소환된 역사는 이를 기점으로 하여 새롭게 시작된다. 1786년을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새로운 ‘식민도시’ 페낭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영국의 페낭섬 점거는 섬의 본 소유주인 커다 술탄과의 협상에서 보인 절차적인 문제나, ‘해골정부’라 비판받은 그 운영에서나, ‘졸렬함’이 넘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 새로운 식민지의 성격 규정에도 이어졌다. 초기 개척자인 라이트의 ‘자유항’이라는 설정은 자유 무역과 자유 이민으로 이어지고, 페낭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것도 ‘해골정부’의 연장인 행정적 방임에 가까웠다.

---

2) II·III·IV장의 내용은 『아편과 깡통의 궁전』을 재구성한 것으로 별도의 전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이 새로운 식민지의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운영을 위해 전근대적인 ‘징세청부제’(revenue farming system)를 도입한다. 징세권을 민간에 위탁한 이 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권과 함께 운영되었다. 페낭 내에서는 그 중 아편 징세청부제의 규모가 제일 컸다. 이 제도는 페낭이 인도총독부의 책임관 통치(1786)나 지사부로의 승격(1805), 해협식민지로의 편입(1824), 직할 식민지로의 편입(1867)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식민당국의 방치에 가까운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자유로운 교역을 꿈꾸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었다. 식민지 건설 초기인 1788년 12월 1,283명의 전체 페낭 인구 중 중국계는 537명으로 이미 상당한 규모를 형성했다. 이들은 ‘교역하는 디아스포라’ 사회로서 동남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던 중국계 이주 집단의 일부였다. 페낭의 인구는 1818년 무렵 3만에 달하였으며, 조지타운(페낭섬)의 중국계 인구는 3,128명에 달했다. 중국계 인구의 폭발적인 유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바바 말레이어(Baba Malay)를 공통어로 사용했던 페낭의 초기 ‘교역하는 디아스포라’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에 따라 점차 페낭 호끼엔(Penang Hokkien)을 사용하는 복건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페낭의 화인 사회는 현지에 기반을 잡은 페라나칸이나 라오케(老客)와 새롭게 등장한 신케(新客)로 구분되었으며, 전자는 후자를 후추농원의 농민이나 상점의 점원, 광산의 광부 등으로 채용하였다. 이러한 신케는 아편의 주 소비자들이기도 했다. 한편, 새로운 중국계 이민의 폭발적 증가는 이에 대한 통제 문제를 낳게 되었다.

페낭의 화인 사회에는 성립 초기부터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파로 광방(광둥 출신)과 복방(복건 출신)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또한, 해골정부라 비판받는 식민지 행정 기구를 사실상 대체하는 중국계의 자치 정부에 가까운 비밀결사로 의흥회(義興會)가 조직

된다. 이후 페낭 화인 사회의 규모가 커지자 점차 특정 지역의 유력 씨족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중 복건 5대 성씨인 쿠(邱), 림(林), 차아(謝), 탄(陳), 여(楊)는 각각 종친회관 성격의 공시(公司)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복건 5대 성씨의 성장은 페낭의 문화를 이들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페낭 형성 초기에 활약한 코라이환(辜禮歡)의 쿠씨와 같은 기존 주류층도 이들과의 혼맥 등을 통해 그에 점차 동화 되는데, 이를 통해 페낭만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페낭 호키엔이 페낭 화인 사회의 공통어가 되고, 이들이 주축이 된 건덕당(建德堂)이 아편팜 등의 이권을 장악한다. 복건 5대 성씨의 공고한 결합은 기존의 의흥회와 대립각을 이루며 페낭을 비롯한 말라카 해협 북부 화인 사회를 재편하게 된다.

### Ⅲ. ‘강통과 거상의 시대’, 페낭 화인 사회의 전성기

말라카 해협 북부의 주석 광산들은 노동집약적인 저열한 생산 시스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 유럽의 주석 수요 증가로 인하여 효율적인 주석 광산 경제를 형성할 수 있었다.<sup>3)</sup> 이 새로운 산업 구조는 페낭의 화인 사회에 후추농원이나 아편 중개의 이윤을 뛰어넘는 막대한 부를 약속했다. 이에 페락(Perak)과 슬랑오르(Selangor)를 중심으로 주석 광산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주석 산업은 페낭에 기반을 둔 거상들의 재력, 광부로 투입되는 새끼돼지(豬仔) 혹은 쿨리(苦力, coolie)라 불린 중국계 이민 노동자,

---

3) 말라카 해협 인근의 주석은 기원 전후의 동고나 6세기 이래의 불상 제작에 쓰인 바 있다(강희정 2019). 15~16세기의 브루나이 침몰선(Brunei Shipwreck)에서는 128개의 말레이산 주석괴가 발견되기도 했다(주경미 2015).

그리고 이들을 통제하는 아편팜과 광산 매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주석 광산의 개발은 말레이 반도를 넘어 점차 태국과 수마트라로 확장되었다. 그렇게 개발된 광산은 그 자체가 독자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회’를 형성했고, 이것은 곧 폐낭 화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척한 ‘식민 공간’이기도 했다.

이 지역의 주석 광산 노동은 중국의 일반적인 임노동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임금을 보장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거의 일상적인 배고픔에 노출되었던 이들에게는 무상으로 풍부하게 제공되는 식사도 매력적인 유인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거기에 일부 화인 거상들의 성공 신화가 덧붙여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광둥과 복건의 많은 젊은이들을 폐낭을 비롯한 영국령 해협식민지로의 모험에 나서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주석 광산의 광부에게는 각기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아편 소비와 광산 매점의 운영이라는 가혹한 시스템이 강요되었다. 반면, 정보와 자본을 가진 폐낭의 화인 거상은 광산 개발에 대한 투자, 광부-쿨리의 모집과 운송, 광산과 매점의 운영, 주석의 유통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광부들이 높은 강도의 노동을 견디기 위해 찾을 수밖에 없었던 아편의 중간 가공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기도 했다.

광산의 신케 젊은이들은 노동 수입의 대부분을 이 아편과 광산 매점 시스템에 다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각기병은 광산 노동자의 상당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 새끼돼지라 불린 이 젊은이들은 폐낭을 비롯한 말라카 해협 북부 화인 사회가 형성한 주석 산업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소모되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이런 주석 광산과 아편팜 제도는 폐낭 화인 사회에 엄청난 부를 보장했다. 폐낭 화인 사회의 좋은 시절은 이런 구조 속에 가능했다.

아편(흑)과 주석(백)이라는 기회는 폐낭의 화인 사회에는 엄청난

부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쿨리들은 ‘부자’의 꿈으로 찾아온 공간에서 기존의 ‘화인 부자’들이 이룬 시스템 속의 한 줌 아편 연기로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한편으로 이 화인 부자의 대부분은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쿨리’이기도 했다. 성공신화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지만, 매우 선명한 자취를 남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아편과 주석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거상들은 화인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취향을 형성하였으며, 해협 주변의 주식 광산 개발은 폐낭 화인 사회의 확장을 가져왔다.

폐낭 화인 사회의 절정기는 아편과 주석이 제공하는 부에 취해 있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1867년 폐낭에서는 아편판 경매를 둘러싸고 건덕방과 의흥회 사이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력 충돌이 있었다. 이 ‘폐낭 폭동’은 영국의 식민지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비밀결사에 의한 화인 사회의 자체적인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이 되었다. 아울러 같은 해에 진행된 직할 식민지로의 변화는 화인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위한 화인보호관제(1877) 시행을 불러왔다.

식민당국은 폐낭의 제도권 화인들에 의한 신케의 통제와 착취라는 기존 시스템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폐낭 땅에 새롭게 발을 디딘 젊은 신케들은 이제 폐낭 화인 사회의 비밀결사가 아닌, 식민 당국의 화인보호관서와 행정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또한, 화인 비밀결사의 수령들을 집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방하거나 강제 탈퇴시켜, 이들을 분리하는 정책도 시행되었다. 이처럼 우유에서 크림을 걸어내듯, 기득권 화인 사회는 점차 새롭게 도착한 신케와 분리되었다.

변화된 식민지 환경 속에서 기능을 다한 비밀결사 건덕당의 기능은 평장회관(平章會館)이 대신하게 되었으며, 식민 당국의 개입 속에 새로운 시스템은 유지될 수 있었다. 비밀결사의 지도자였던 쿠텐

테익(1818~1890)과 청캥퀴(1821~1901)가 함께 했던 주식의 시대는 저물고, 화인 사회의 지도자는 콰벙키(1872~1952)와 같은 서구화된 화인 엘리트로 대체된다. 이제 페라나칸 라오케와 신케는 더 이상 다시 섞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1867년 이래 시행된 식민당국의 적극적 개입과 관리는 양자의 분리를 낳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 페낭 화인 사회는 유래 없을 정도의 좋은 시절을 만났다. 다만, 그 시절은 길지 않았다.

#### IV. ‘고무바퀴 아래의 페낭 화인사회’와 그 변화

페낭 화인 사회의 몰락은 19세기말~1914년 1차대전 이전의 벨 에포크(Belle Époque)<sup>4)</sup> 시절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현실화되었다. 신케 거상의 적수공권 성공 신화의 배경이 되었던 아편팜과 주식 광산 산업은 이 시점에 큰 변화를 맞게 된다. 20세기 초반에 주식 광산 산업에는 수력 채광기가 도입되어, 쿨리의 인력에 의존했던 기존의 채광 방식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1911년에는 아편에 대한 징세청부제가 폐지되고, 식민 당국의 전매제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유럽 자본의 본격적인 등장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었다.

1887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영국계의 해협무역회사는 주식 광산의 원광을 시세에 따라 현금 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주식 산업에 대한 페낭 화인 거상들의 독점권을 깨뜨렸다. 새롭고 막강한 경쟁 상대는 해상 운송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1890년 설립된 해협증기선회사는 해협무역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대형 해운사로 빠르게 성장

---

4) 1870년대에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전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말로 유럽에서 한동안 전쟁이 멈추고, 빠른 경제적 성장,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된 시기를 의미한다.



했고, 화인 거상들의 해상 운송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페낭과 수마트라 북부를 연결하는 화인 교역 네트워크는 네덜란드계 해운업체인 KPM의 등장으로 몰락했다.

이러한 변화는 벨 에포크의 시대에 가속화되었고, 고무의 시대가 본격화하기 전에 이미 가시화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페낭의 화인 거상들은 푸켓의 행정장관이었던 커심비(1856~1913)를 중심으로 방파를 넘어선 화인 연합체를 형성하여 대항하였다. 그러나 저항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커심비가 사망하는 1913년 무렵에는 이미 거대 금융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유럽 자본에 말라카 해협 북부의 경제는 잠식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막대한 유럽 자본이 투자된 거대한 고무 농장이 말레이반도와 수마트라 북부에 들어선다.

1905년 200톤 규모에 불과했던 영국령 말라야의 생고무 생산량은 1910년 6,000톤, 1920년에는 17만 4,000톤으로 급격하게 성장한다. 짧은 기간 동안의 폭발적 증가는 그만큼 많은 자본과 노동력의 투입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페낭의 화인 거상들도 이런 흐름에 어느 정도는 동참했다. 그러나 1929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화인 거상들이 투자한 고무 농장들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부분 몰락한다. 한편, 고무바퀴 아래의 페낭 화인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큰 폭의 변화에 직면한다.

농장과 광산의 노동자로 페낭 지역에 유입된 중국계 인구는 대부분 남성이었고, 이는 최대 18:1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낳았다. 동남아계 여성 노예와 매춘부, 어린 하녀인 무이차이가 소수 유입되어 이 심각한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대다수의 중국계 이민들은 막대한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 내에서 뿌리내릴 수 없었다. 이 점은 페낭의 화인 거상들과 신케를 구분하는 큰 차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중국인 여성의 이주가 가능하게 되자 이는 변화를 맞이

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의 유입은 1910년 남녀의 성비를 4:1까지 낮추게 되었고, 1947년 이 비율은 남자 1,000명에 여자 815명으로 거의 균형에 가깝게 되었다. 성공한 일부만이 겨우 화인 뇨냐(Nyonya)와의 혼인을 통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그 안에 다양한 사회 계층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화인 사회만이 아니었다. 페낭은 그간 영국령의 해협식민지에 속했는데, 1909년 즈음에는 영국령 말라야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제안되었던 것이다.

이편과 주석의 시대, 페낭의 화인 사회는 폭넓은 자치권을 누렸다. 이 자치는 해골정부에 의한 방입의 또 다른 측면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 그들의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의심받지 않았다. 한편으로 이 ‘중국인 정체성’은 페라나칸과 신케, 라오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단일한 것인 반면, 근대적 감각의 국적성이나 근대 민족주의 시대의 민족 정체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월경하는 교역 네트워크’로서의 해협의 화인 사회는 페낭, 페락, 메단, 푸켓 등을 포함하는 ‘페낭 화인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중국인이자 영국의 신민으로서 이방인 페낭에서 살아가는 ‘3중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정체성’은 상당 기간 직접적인 고민의 대상은 아니었다. 1867년 직할 식민지 편입, 1874년 팡코르 조약 이후의 말라야에 대한 식민지 확장, 1909년의 영국령 말라야의 성립 등 일련의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페낭 화인권 내적으로는 한 세대 이상의 긴 시간적 흐름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민족주의 시대’와 직면하게 되면서, 이들도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 시점의 선택은 ‘말라야 화인’이라는 개념이며, 이는 식민지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통치와 식민지인에 대한 엄격한 통제 속에서 ‘말라야’라는 단일한 공간과 ‘말라야인’이라는 정체성이 ‘상상’되는

가운데 가능할 수 있었다. 영령 말라야의 구조는 유럽인에 의한 정치·행정의 장악과 중국인과 인도인 등 이민자에 의한 산업(노동)과 무역 부분의 충족, 말레이인들의 벼농사 중심의 농업 생산으로 이루어졌다.

그간 자유롭던 교역이 식민지와 독립국의 ‘민족 정체성’으로 제한되면서, 그 내용과 범위에도 한계가 생겨났다. 페낭의 화인 사회도 말라야를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의 다양한 문화를 포섭하여 새롭게 제안된 ‘정체성’ 속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페라나칸 문화를 찾아온 여행자에게 말레이시아의 랑카위가 아닌 태국의 푸켓을 권유한 택시 기사의 행동처럼(5쪽), 페낭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교역하는 디아스포라’, ‘페낭 화인권’의 기억은 그들이 남긴 역사와 문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V. 교역하는 디아스포라, 동남아의 화인 사회

‘페라나칸 문화’는 싱가포르 중심의 이색적 양상의 혼종 문화로 우리 사회에 이제 막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그에 대한 이해도 거친 편이다. 우리 학계에서 이는 동남아의 중국계 남성과 현지 여성의 인적 결합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 영국과 네덜란드 등 서구 문화의 영향을 수용하여 형성한 문화로 정의되곤 한다(김영술 2014). 본래 페라나칸에는 다양한 ‘이주 집단’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계의 페라나칸<sup>5)</sup>이기 때문에 이는

---

5)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은 이를 북부 자바에 이른 시기에 형성된 중국계 이민 사회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peranakan’,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G. & C. MERRIAM CO. 1976), p. 1675. 이 정의 속에 아주 익숙한 역사적 대상인 영령 말라야의 페낭이나 싱가포르 등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동남아의 화인 집단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동남아의 화인 집단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가 될 수 있다.

저자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페라나칸이라는 이색적인 문화의 배경에 위치한 역사적 침전물로 구성된 다양한 ‘결’들에 주목해야만, 그 문화 내용에 대한 정당한 이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이 연구의 ‘전망’이자 ‘목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8세기 후반 시작된 페낭 화인 사회는 그 영향력이나 사례 측면에서 매우 적합한 연구 대상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늘날의 페낭과 페라나칸 문화로 언급되는 현상에 대한 매우 유효한 접근이 된다. 이를 통해 저자는 페낭과 이를 중심으로 하여 보다 깊게 내면을 드러낸 화인 사회의 모습을 해당 집단의 DNA와도 같은 ‘교역’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었고, 그 양상의 변화에 따른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집단의 집적과 상호 교류,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아편과 깡통의 궁전』 속의 교역 주체는 ‘페낭 화인 거상’이다. 그들은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와 주석, 고무 등의 평범한 교역품을 다루기도 했고, 아편이나 ‘중국인(쿨리)’, ‘노예’와 같은 비윤리적인 교역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 지역과 교섭했다. 교역 시장의 성격에 따라, 혹은 그들이 처한 시대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체’로 활동한 ‘화인 거상’들과 교역 대상이거나 농장 및 광산의 노동자, 아편의 최종 소비자로 소모된 다수의 ‘중국인 이주자’들은 서로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페낭의 화인 거상들은 농장과 광산, 시장을 개척하고 메단이나 페락, 푸켓 같은 지역에 새로운 ‘화인 사회’를 이식했다. 그들은 이러한 거점들을 상호 연결하여, 주력 교역품을 생산·운반·유통했고, 이를 통해 그 거점으로서 페낭의 지위를 강화했다. 이들의 확대된 시장

은 곧 확대된 사회를 형성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인들의 작은 이주 거점이던 페낭은 그 속의 ‘고향’이나 ‘모국’ 같은 존재로까지 변모했다. 이런 측면은 이들이 형성한 ‘문화’에서도 드러나며, 그것은 ‘열세 살 매단 소녀’의 페낭 문화에 대한 동경(283~288쪽)에서도 읽혀진다.

이 연구는 오늘날 동남아 사회의 화인으로 일컬어지는 대상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 안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1786년 이전 단계의 페라나칸, 바바, 라오케에서부터 그 이후의 각 단계에 이주·정착한 이들, 그리고 쿨리로 등장하여 신케를 이룬 집단까지 다양한 층위가 존재했다. 그리고 이는 곧 각각의 집단에 속한 이들의 정체성과 향유한 문화에도 큰 차이를 남겼다.

페낭 화인 사회의 다양한 층위를 드러내는 작업은 곧 이들의 문화, 즉 페라나칸 문화로 일컬어지는 문화 유형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본격적인 작업 이전에 행해지는 선행적 작업의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는 교역과 협력, 연구의 대상으로서 오늘날의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화인 사회의 형성 과정과 그 특성을 포착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페낭 화인 사회에 대한 다음 단계의 논의 전개는 아마도 2차대전 이후의 변화거나, 이 책에서 다룬 시기의 ‘문화’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저자의 저술 의도를 고려하건대,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 책의 저술에 대한 저자의 의도는 “문화로 돌아가기에 앞서 ‘아편과 깡통의 궁전’부터 세워 본 이유”(447쪽)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저자의 ‘페라나칸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조명이 이루어질 다음 연구가 기대되는 지점이다.

〈참고문헌〉

- 강희정. 2013.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 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동남아시아연구』 23(3).
- 강희정 · 권오영 · 아마라 스리수첛 · 김영미 · 썬 득 아인 썬(강희정  
역음). 2019. 『해상 실크로드와 문명의 교류』. 사회평론아카  
데미
- 김영술. 2014. “인도네시아 중국계 페라나칸의 혼종성 연구.” 『아세  
아연구』 57(1): 253.
- 주경미. 2015. “동남아 수중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 현황.” 『역사와  
경계』 97: 408.